공동의 자리: 상호-반향

배은아(로쿠스 솔루스)

들어가며_미음

2023년, 그해의 겨울 끝자락에 나는 이윤이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제주 예술곶산양에 입주하여,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윤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이 읽히는 회문 구조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반복이 대칭을 이루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이, 이윤이는『오늘 오름』이라는 도톰하고 푸른 책을 건내 주었다. 오늘 오름. 오름은 제주어로 산을 의미한다. 불룩하게 나온 지형의 어원에서 볼보, 홀모, 호름, 오름으로 변화했다는 유래가 있으며, '오르다'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윤이의 첫번째 글자 '이'를 따라 올라가서 '윤'에 다다르고 다시 '이'를 따라 내려오는 볼록한 오름을 그리는 또다른 상상을 하는 사이, 이윤이는 사무실의 유리문을 슬며시 열어주었다.

2025년, 삼청동 길을 향해 조용히 입구를 내밀고 있는 갤러리조선의 무거운 문을 밀고 긴 계단을 내려가면, 지난 여름, 이윤이가 보낸 신안 증도의 시간을 지켜준 성령인 〈파라클레토스〉(2025), 도시의 횡단을 기록한 행인들의 〈두 앵커〉(2025), 그리고 소금과 진흙으로 응축된 수호령의 〈적녹백〉(2025)이 전시장을 지키고 있었다. 갤러리의 시멘트 바닥을 판판하게 덮은, 반짝이는 은박지 위에 추운

몸을 내려놓으니, 문득 1년 전 유독 차가운 겨울 여의도 광장을 점유했던 어린 소녀들의 키세스 군단이 떠오른다. 깜빡거리는 응원봉을 어깨 위로 흔들며 "아파트! 아파트!"* 를 창창하게 외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가사와 함께 전진하던 발랄한 행진. 너희들은 함께 있어 덜 추웠을까?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피난민을 감싸던 은박지 더미가 그 잔상과 오버랩되는 사이, 영상 속 염전의 규칙적인 사각 판형이 질척한 갯벌의 표면 위로 겹쳐 비치고 떠오르고 밀려나며 사라진다.

2024년, 이윤이는 신안 증도의 '소금 같은 예술'에서 운영하는 '스믜집'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조재영 작가와 함께 아티스틱 리서치 듀오 '딜리네스'를 결성하고, 증도의 물길과 대기의 흔적을 머금은 진흙과 소금 등을 고스트 프린트(Ghost Print)로 남겼다. 그해 가을 '로쿠스 솔루스'에서 열린 딜리네스의 첫번째 전시《타이드 채널링》을 계기로, 땅끝마을 해남으로 떠나는 리서치 트립 〈건조한 여정, 습한 여정, 지고한 여정〉을 계획했다. 그 과정 속에서 떠올린 신안의 흔적들을 손으로 자르고 붙이는 대화로부터 만들어진『머뭇』. ㅅㅁㅈ(스믜집), ㄷㄹㄴㅅ(딜리네스), ㄹㅋㅅㅅㄹㅅ(로쿠스 솔루스)의 초성을 따르다 만나는 두 개의 입술 소리 미음(ㅁ). 머-뭇.『머뭇』의 속내는 마치 여러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잠시 멈추어 거기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듯, 낱장으로 흩어져 언제라도 떠날 채비가 되어 있다. 한 장으로 접혀 펼쳐지는 리플릿, 거의 투명한 낮과 밤의 드로잉, 빳빳한 사비안 심볼(Sabian Symbols) 차트 엽서, 그리고 자동기술로 써 내려간 27편의 글은 어디에서 어디로 읽어도 다르게 읽히고, 뒤집어 다른 면을 채우는

* ROSÉ & Bruno Mars, 〈APT.〉, 2024. 가사 일부.

**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I am the Best)〉, 2011. 가사 일부.

퇴적된 흔적의 그림자는 그 어떤 설명 없이도 온전하다. 그들은 과거에 머물렀던 시간의 물성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채워 나갈 미지의 시간을 배려하는 듯 태고의 예지력으로 현재를 힘껏 빨아들인다.

생태-에세이 Eco-Essay

『오늘 오름』은 이윤이가 제주라는 낯선 시공간에서 보낸 일상의 기록이자, 글쓰기를 매개로 오래된 땅과 물, 그리고 인간과 재회하는 치유의 여정이다. 여기서 작가는 관찰자라는 시선 대신 땅의 물길을 지표 삼아, 그리고 타자의 신호를 나침반 삼아 낯선 장소로 이동한다. 시인 김혜순의 표현을 빌리자면, 뼈대 없는 '말미잘(Sea Anemone)'***이 물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듯, 작가는 단단한 자아의 경계를 흐느적거리며, 그 틈으로 밀려들어오는 내면의 문자와 외부의 이미지를 동시에 길어 올린다. 생태(Ecology)의 어원인 '오이코스(Oikos)'가 '사는 집'을 의미하듯, 이윤이의 시선은 지구라는 집에서 다른 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조금 다른 거주를 위한 고민을 담는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분류하는 과학적 시선도 인간의 궤적을 좇는 인류학적 시선도 아닌, 자신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일상의 밀도를 몸으로 체감하며 그 안의 종(種)들이 쌓아 올린 억만년의 생명력에 귀 기울이는 환경적 공명에 가깝다.

"살아 있는 동안이나 떠벌리는 자연 예찬, 환경 위기들, 잠시 왔다 가는 건 인간이니까. 평소에는 물줄기가 없다가 큰비가 내리면 폭포를 만든다는 곳…. 인간도 자연 앞에 엉뚱한 잠깐의 현상 같은 건 아닐까. 잠깐

*** 김혜순. 「시인의 말」.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파주: 난다, 2025), 5.

뜨는 무지개 같은. 잠깐의 폭포 같은 젊음.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 이름을 메모하고, 마치 비오는 날 튀어 나갈 개구리처럼…."****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그 사이에 올라온 문자와 이미지를 담아낸 이 도톰한 한 권의 책에는, 작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끊임없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주변사와 그럼에도 계속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작업관이 함께 뒤섞여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이동, 동료들과의 협력과 협업, 그리고 자신의 먹고 자는 진부한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위험이나 모험에의 충동들. 그렇다고 그 어떠한 완결된 형식이나 미적 완성에 가닿으려는 충동 또한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흔들림까지도 받아들이는 이윤이의 생태적 태도는, 2023년 『오늘 오름』의 지면에서 2025년 개인전 《태양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상호-반향 Inter-Echo

Who stands beside?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는 헬라어로 '곁에 서는 자', '위로자', '보혜사'를 뜻한다. 작가는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임시 설치된 은박지 위로 관객을 초대한다. 반짝이는 표면은 섬을 둘러싼 대기의 파란빛을 반사하고, 톡톡한 질감은 관객의 체온을 덥힌다. 사선으로 접혀서 솟은 열린 지면 사이에서 나오는 영사기의 빛은 오래된 주거지의 '화로'*****마냥 주변의 시선을 작품을 향해 묶어낸다. 그 반대로 연기로 태워 풀어주며 마주한 기둥에

**** 이윤이. 『오늘 오름』.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곶 산양, 2023), 19.
***** 팀 잉골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옮김 (서울: 이비, 2024), 45.

설치된 〈수호령〉(2025)을 향해 그 재를 날린다.

정령의 기도 속에서 구현된 삼면화 〈적녹백〉은 세 가지 색—적(赤), 녹(綠), 백(白)—의 상징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 폭의 평면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이다. 밭 전(田) 형태의 패턴과 흙, 소금 같은 재료는 땅과 태양, 그리고 노동의 물성을 환기시킨다.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세 개의 판은 각각 서로 다른 위격(persona)을 드러낸다. 이는 성서 속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적인 동사(verb)를 통해 노하거나 용서하는 인격체로 묘사되듯, 작가의 물질들 또한 저마다의 감정과 태도를 지닌 존재로 고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OHP 필름 위에 소금, 진흙, 레진이 조합된 〈수호령〉은 사실 전시장 중앙벽에 세워진 〈적녹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 작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함께한, 감각적 경로를 제시하고 안내해 온—정령으로서—질료들을 위한 자리 또한 잊지 않았다. 마치 중세 교회의 스테인글라스처럼 하나는 전시장을 내려오는 층계 초입의 유리에서 전시장 내부를 비추고, 다른 하나는 전시장 중앙 기둥 위에서 아래를 비추며, 층계를 따라 입장하는 관객을 맞이한다. 이렇듯 아래로 모이는 다층의 시선을 받는 은박지 바닥은 신안의 전도사 문준경을 추모하는 선교기념관이나 그의 교리를 따르는 대초리 교회 같은 종교적 기념공간 너머의 장소로서 '신앙 혹은 믿음이 어떻게 기념되는가'라는 좀 더 본질적이고 예민한 질문을 던진다.

신앙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그것 또한 비물질적이고 유동적이며, 그 미적 가치의 공유는 어떠한 언어적 서술이나 시각적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작가는 은박지와 같은 일시적인 재료, 소금이나 진흙과 같은 작업의 잔여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질료들을 갤러리로 옮겨오며, 예술이라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귀기울여 받들어야 할 하나의 메시지로 돌려놓는다. 작가에게 카메라로 대상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다. 모든 감각 기능이 집중된 몸의 순간 속에는, 그는 자신의 두 손과 고개 숙인 머리 위로 찾아오는 일종의 '축성(consecration)'******—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문학이라는 공유지에서 피어나는 공통의 정신적 산물—과 같은 순간들을 포착하는 성스러움이 함께한다. 이윤이는 이 내밀하고 친밀한 시간의 조각을 마치 자기만의 종교적 의례를 수행하듯, 자기만의 언어를 시로 써 가듯, 하나씩 전시장으로 옮겨 서로의 곁에 놓는다. 이때, 이윤이가 취하는 서사 전개 방식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자칫 거부감 들게 할 수 있는 '영성'이나 '공동체'라는 언어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이로써 관객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예술의 시선에서든 종교의 시선에서든, 혹은 감상의 차원이든 믿음의 차원이든, 예술과 종교의 미묘한 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보편적 의제로 연루시킨다. '당신은 그 자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감정으로 머물게 되나요?' 이러한 이윤이의 시각-에세이가 만들어내는 외현적 반향(echo)과 내면적 상호(Inter)의 공모는 관객과 작업 사이의 보이지 않는 망으로 직조되어, 이름 모를 존재들의 리듬에 응답하고 곁을 지키는 '파라클레토스'적 연대를 위한 일시적인 성소를 구현해낸다.

공동의 자리(들)

제주에서 신안으로, 신안에서 다시 도시로, 그리고

****** 버지니아 울프.「서재에서 보낸 시간」.『문학은 공유지입니다』. 최애리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22), 23.

도시에서 해남으로 땅을 가로지르는 이윤이의 스크린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도구라기 보다는,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이동을 지속하게 하는, 항해하는 돛에 가깝다. 염전을 미는 규칙적인 기계음, 그물을 짜는 소년의 서투른 손놀림, 교회 안에 울리는 어수선한 대화, 반복되는 안무가의 매끈한 몸동작과 하늘로 비상하는 연의 꼬리…. 서사로 완성되지 않는, 그렇다고 딱히 어떠한 목적도 없는 장면의 축적 속에서 관객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감각의 진동을 감지한다. '미음(ㅁ)'의 궤적이 언어 이전의 웅얼거림(murmur)에서 비상하는 새 무리의 비행(murmuration)*******으로 확장되듯, 적과 녹으로 분리되었던 세계관이 백으로 통합되고 수평과 수직 사이에는 사선의 움직임이 개입되듯, 현실과 예술의 사이에는 (낯선) 신의 파장이 울리고, 언어와 이미지 사이에는 (익숙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낯설고 익숙한 감각들의 얽힘으로 짜여진 스크린은 공간의 바닥과 기둥 그리고 벽과 창문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을 통해 반추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메시워크(meshwork)를 강조한다.

해질 무렵 마포 일대의 산책로와 놀이터, 지하 통로와 육교의 계단을 횡단하는 카메라, 도시 곳곳에 분포한 지표들, 도시를 헤매는 두 남녀가 붙들고 있는 각자의 '앵커(닻과 부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하나 됨의 의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공통된 문장은 신안과 마포나루라는, 오래 전부터 소금을 실어 나르던 물길과 나루터의 장소적 감각을 교차시킨다. 그러나 퍼포머들은 끝내 하나의 교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각자의

******* 딜리네스. 『머뭇 Murmur/ation』. (서울: 로쿠스 솔루스, 2025), n/p.

궤적을 따라 지그재그로 도시를 누비고, 그 뒤를 따르듯 바닥을 긁으며 이동하는 스피커만이 이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하나의 느슨한 망으로 엮어낸다. 두 퍼포머는 최종 목적지인 마포어린이공원에 이르러서야, 공공조각에 새겨진 옛 나루터 풍경의 문양을 더듬으며, 둘 사이의 혹은 두 장소 사이의 파장을 하나의 리듬으로 겹치게 된다. 영상에서 만들어지는 시각적 교차와 서사의 중첩은 작업이 언젠가 도달해야 할 특정한 메시지 대신, 작업이 더불어 만들어지는 공동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

전시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날, 이윤이는 작업에 협력했던 친구들과 조력자들을 한데 모으는 '워크스루 위드(Walkthrough with)'를 기획한다. 서울에서 신안으로, 그리고 신안에서 해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과거·현재·미래가 담긴 책의 자리 『머뭇』, 하늘과 땅의 기운을 통과해 변화하는 손의 의식을 여는 창의 자리 〈적녹백〉, 도시에 장착된 표식에 반응하여 풍경에 감응하는 서울의 자리 〈두 앵커〉를 거쳐, 역사와 세월, 신과 조상, 노동과 창작 그리고 기록과 연출의 사이 공간을 내놓는 신안의 자리 〈파라클레토스〉. 비록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건조한 여정, 습한 여정, 지고한 여정〉의 여정에서 머물렀던 강진 백련사에서 온 '월산떡차'를 함께 마시는 차의 자리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물이 언어가 되어 가는 이윤이의 시간에 틈을 내어주고,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포개어 이어갔다. 하늘과 땅, 섬과 도시,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었던 두 세계를 횡단과 이동, 점유하는 작가의 시선은 어느새 우리 안에 물길을 따라 흘러들어온다. 마치 전시장에 놓여진 시간의 파편들이, 그리고 우리를 전시에 연루시키는 모든 제안들이 전시를 위해 준비된 기획이 아니라 이미 항상 그 곳에 있었다는 듯,

우리 안에 흩어져 있던 감각의 조각을 맞춰나간다.

나오며_곁

전도사 문준경이 썰물 시간에 맞추어 섬 너머 섬으로 이동하며 하늘의 말씀을 전도했듯, 이윤이는 스스로 훈련하고 분주히 세상의 메시지를 채집하며, 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건네어 나른다. 그렇다고 그것이 종교적 복음이나 정치적인 이념 혹은 그 어떤 정의로움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써 나가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던 그 관계,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던 그 거리, 곁.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다석 철학에 의하면, 땀 흘려 일하는 육체적인 삶의 표현은 '삶에 곁붙인' 것이다. 단순히 육체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얼(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맑고 깨끗하게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의 곁붙임.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것을 통해 비치는 나. 당신이 아닌 나를 통해 만들어진 당신, 그렇게 얽혀 살아가는 우리, 나/너/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곁붙임. 그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하나됨. 그것이 아마도 우리 곁을 잠시 지나친, 어쩌면 잠시 머물렀을 '태양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본다.

배은아(로쿠스 솔루스)
로쿠스 솔루스는 사유가 일어나고 영감이 머무르는 상상의 사무실이며, 예술의 상상력을 믿고 그 실패와 교류를 지원하는 큐레토리얼 연구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의'란 단순한 개인적 공상이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이 공유되는 방식 속에서 형성되는 미지의 영역을 가리킨다. 로쿠스 솔루스는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을 매개로 서로 다른 사유와 상상력이 교차하고 생성되는 장소로서, 끊임없이 변신하며 기존의 정의에서 떨어져 나간다.

p.125–129, 140

〈적녹백〉, 2025, 아크릴판에 글라스데코, 소금, 황토, 진흙, 크리스탈 레진, 58×182cm(3점, 각).
제작 도움: 유지인

p.2–59

〈두 앵커〉(퍼포먼스 기록), 2025, 싱글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26분 19초.
연출: 이윤이
프로듀서: 신진영 (아파랏/어스)
퍼포머: 이윤, 방지현
음악·사운드: 김남윤
영상: 이희인
음원: 구토와 눈물 (홍철기 협연), 〈Naptalam〉 (Sun Plaza, 2023)
번역: 이윤
촬영: 이진실, 이학민
동시 녹음: 김하은
주최·주관: 윈드밀